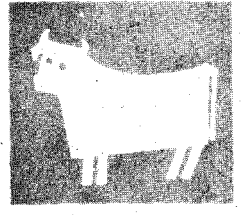


# 축산업계 동향



농수산부, 양계·양돈 가격안정 대책회의 개최

## 부화장 신규허가억제, 무허가 부화장 단속 방침 —본회, 난분(卵粉)수입중지등 건의—

지난 10월19일 오후 2시 농수산부 회의실에서 박종문 농수산차관보의 주재하에 양계, 양돈 가격안정대책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회의에는 농수산관계 및 각도축정과장, 축산진흥회, 농협, 농촌진흥청관계관 및 오세정 회장과 양돈협회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본회 오세정 회장은 육계가격 하락에 따른 정부의 수매수축사업실시에 감사하고 아울러 양계업계의 제반실정을 설명하면서 특히 계란가격이 폭락하는 현실정에 모식품업체에서 난분(卵粉, egg powder)을 수입하므로써 전국 양계농민들에게 커다란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계란의 수입자동승인 품목지정을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아울러 ① 생산조절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양계협회기능을 법적으로 강화해줄 것 ② 양계안정기금조성 ③ 산란노계, 육계중계의 군납 및 비축방안 강구 ④ 양계 소득표준율인하 ⑤ 양계기구도입 면세 ⑥ 도계장 및 난가공시설업체 지원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종문차관보는 계란 수입을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아울러 생산자들의 자율적 생산조절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회의에서 부화장의 남립과 무허가 부화장의 생산활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 부화통계의 미흡, 생산조절체제의 미확립으로 생산추정 및

생산조절이 어렵다고 분석하고 ① 부화장신규허가를 억제하고 ② 부화장의 철저한 검사 ③ 무허가부화장의 단속강화 ④ 부화장 생산 실적러위보고 단속 ⑤ 생산조절을 위한 생산조절협의회 구성추진 등을 강력히 실천하기로 하고 금년도 말까지는 신규 종계(P, S)도입을 일단 중단하기로 했다.

한편 돼지의 생산조절을 위하여 양돈농가의 등록제 실시 방안이 논의 되었다.

## 농수산부, 난분(卵粉) 수입억제 대책 강구중

—계란 냉동비축 방안도 검토중—

지난 10월22일 오후 2시 농수산부 축산국장실에서 계란가격하락 및 계란도입에 따른 대책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지설하 축산국장의 주재하에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이관범 가공이용과장을 비롯한 농수산관계관과 축산진흥회, 축산시험장 이용연구담당관 KIST 및 본회 회장해위원장(채란분과), 삼립식품, 롯데제과, 한국낙농, 서울우유 조합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설하 축산국장은 계란의 수

# 축산업계 동향

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농수산부는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음을 밝히고 근본적으로 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서 계란의 가공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난분(卵粉)을 수입한 모식품업체 관계자는 계란성수기에 계란구매에 애로를 겪어 난분을 수입하게 되었다고 해명하고 실제로 도입 난분을 사용해본 결과 상품의 품질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국내에서 계란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면 굳이 난분을 수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계란가공에 대한 토의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난분 보다는 냉동액란(冷凍液卵)으로 보관·저장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얻고 이의 실시방안에 대하여 추후 충분히 연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 농수산부, 육계수매비축실시

—지난 10월19일부터—

육계수매비축은 응급조치일 뿐  
근본적으로 생산조절이 뒤따라야만  
불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

농수산부는 육계불황에 처한 양계생산 농가를 구제하기 위하여 육계수매비축을 긴급히 실시하기로 결정하여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10월19일부터 축산진흥회(회장: 함 만준)가 본 협회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육계 수매비축에 착수했다.

이에 본회는 지난 10월16일 서울, 경기지역의

13개 계우회와 단지에 체화물량을 본회에 보고 해주도록 공문을 발송했다.

수매가격은 450원/kg으로 수매도계장은 포천 소재 포천축협도계장과 인천소재 영신식품이다.

또한 금번 비축사업대상은 본협회를 통한 일 반양계농가와 농협을 통한 닭고기군납계약 생산 농가로서 군납농가 에게는 지난 10월 23일부터 수매비축이 이루어 지도록 되고 있다.

한편 축산진흥회는 지난 23일부터 충남북지역을 수매대상지역으로 확대했으며 수매도계장은 수원과 동두천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육계수매비축이 실시되면서부터 서울·경기지역 육계시세는 회복되기 시작하여 10월26일 현재 평균 450원수준에 이름에 따라 본회는 축산진흥회에 수매가격을 550원으로 조속히 인상해 줄 것을 건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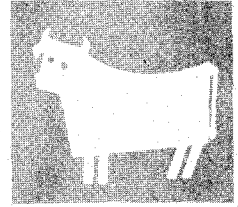
## 79~80년 세계농산물 가격전망 불투명

—FAO전망, 경기침체·인프레 겹쳐—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세계농산물 가격전망이 대단히 불투명하며 유동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밝혔다.

FAO의 사무국이 66개국 농산물문제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금년도 수확물이 판매될 79~80년도 한해동안의 전망은 대단히 불투명하며 현재의 경제상황진전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공업국과 석유수입개도국이 다같이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둔화로 많은 농산물제품, 특히 섬유 및 고무와 같은 농산원료의 수요



가 弱化될 것이라고 말한 보고서는 동시에 높은 인플레이션, 세계통화시장의 불안정 및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일부 저장가능한 상품에 대한 경기가 증대되어 이로인해 경제수요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가격상승압력이 증대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FAO는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많은 농산품의 79~80년도 공급전망불균형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79년의 세계밀 조곡생산량이 78년의 기록적수준보다 현저히 줄어 들고 쌀, 밀, 설탕생산량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과, 후추 및 황마도 상당한 생산량의 감소가 예상되며 앞서 양호한 것으로 전망된 79~80년의 코피작황도 78년과 79년의 서리로 피해를 입었다.

(단위 : 100만톤)

국 가	生 産 輸 山			
	(78/79)	(79/80)	(78/79)	(79/80)
알 제 틴	17.3	16.7	11.5	9.6
카 나 다	20.2	18.2	3.9	4.2
호 주	7.1	5.8	2.5	3.5
태 국	3.2	3.6	2.1	2.5
남 아프리카	8.3	9.9	3.3	1.9
브 라 질	17.9	19.1	0	0
합 계	74.0	73.3	23.3	21.7

## 미국, 사료곡물 수출

### 세계시장의 71% 전망

—금년도 전세계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년 전세계 사료곡물 생산은 감수입에 반하여 수요는 1,000만톤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70/80의 미국산 수출은 전년보다 1,400만톤이나 증가할 것 같다.

이는 미국이외의 주요 사료곡물 수출국 수출량이 160만톤, 소련과 서구 수출량이 200만톤 줄 것이라는 데 근거를 둔 분석이다. 따라서 미국의 사료곡물 시장 점유율은 근년의 연평균 64%보다 훨씬 상회하는 71%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이외의 주요 수출국의 사료곡물생산 및 수출예상은 다음과 같다.

## 농수산부, 돼지고기

### 가공품 적극 개발

—고급소시지·건포등축산진흥기금

지원으로—

농수산부는 국내생산증가로 하락하고 있는 돼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출을 촉진하는 한편 고급소시지 등 가공식품 개발을 서두르기로 했다. 농수산부가 마련한 「돼지고기 수요방안」에 따르면 소비촉진을 위해 돼지고기를 원료로한 고급소시지, 햄, 건포등 가공식품 개발을 적극 화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농수산부는 축산진흥기금으로 연말까지 총 22만2천두의 돼지를 수매비축 수출을 꾀하고 축산시험장등에 용역을 의뢰, 고급소시지 등 가공식품을 개발 소비를 촉진키로 했다.

또 농수산부는 미국대두협회 및 미국 사료곡물 협

# 축산업계 동향

회 한국지부에 의뢰, 1만부의 돼지고기 요리책자를 발간토록하여 반상회를 통해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도 농수산부는 TV요리강연등 PR를강화하고 정육점등에는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포스터를 붙일 계획이다.

농수산부 관계관은 돼지생산증가로 연간 1백30만두의 돼지가 남이돌아 어느때보다도 소비촉진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가공식품개발 적극화등 소비촉진책으로 연간 돼지고기 수요를 20%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돼지수는 8월말현재 3백만마리를 넘고있어 과일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 주곡완전자급까지는 곡물류 자급에 최우선

### —농경연, 최근발표한 보고서에서 밝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농업의 기본 방향은 자급자족적인 영농형태에서 상업적 영농으로 전환하면서 주곡의 완전자급까지는 곡물류 생산농업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경연은 최근 발표한 「전환기 한국농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이란 보고서에서 주장하고 생활개선에 따른 축산물 수요급증에 대비, 양축농업형태를 장려하고 생산자조합에 의한 계통출하의 강화와 농업생산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농경연은 또 우리나라 농업은 국민식량의 공급원 역할과 공업원료의 공급, 노동력제공, 농촌의 공산품구매력 그리고 국가비상시에 전국민

의 생존의 터전이라는 중요성등을 고려, 농업의 개방보다는 적극적인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위해 주곡의 완전자급이 이룩될 때까지 주곡가격의 지지와 2중가격제를 계속 존속시켜 증산을 유도하고 경지정리, 도로수송등 기반조성사업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해 정부는 출하조합같은 생산자조합육성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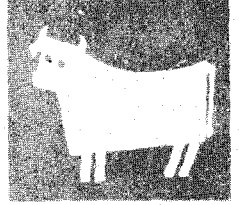
농경연은 이밖에 축산업 위주로 변화하는 농업구조하에서 축산물생산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싼가격의 축산물공급을 위해 사료용곡물수입을 자유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 농촌 임요금상승따라 농업기계화 촉진불가피

### —농협보고서, 축산·채소류증산도 절실—

농협중앙회는 전환기 농정에 있어 농촌노동력 부족과 이에따른 노임상승, 농촌임요금의 농산물가상승추도, 농림부와 비농림부의 소득격차 확대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 농업기계화의 촉진, 축산및 채소류의 증산을 기할 수 있는 농업생산의 재편성, 농산물가격의 안정화를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이 마련한 「전환기 농업개발 정책의 방향」이란 연구보고에 따르면 농업인구의 비농업부문의 진출로 영농종사자는 올해 5백86만4천명에서 81년 5백41만5천명, 86년 4백11만9천명, 91년 3백3만3천명으로 계속 줄어들 전망이므로 농촌노동력 부족과 이에따른 노임상승유발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될 것이며 이러한



농촌임금의 상승이 농촌물가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

또한 비농업부문의 급속한 성장으로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것도 전환기 농정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농산물의 수입개방은 국내생산기반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고 비교생산우위론의 농업부문 적용이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치 않을 것이며 세계식량수급이 안정되어 있지않은 여건에서 식량안보 측면에서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농업개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업기제화를 촉진하되 지역별 보급기종을 달리하여 차별적인 지원올함으로써 과잉투자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농업생산의 재편성에 있어서는 축산부문에 대

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과및 채소류의 증산을 기하며 서류는 자유시장기능에 맡겨생산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농산물유통의 원활화를 위해 유통조직의 혁신, 등급규격화및 포장개선, 유통기금의 설치운동등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 美國, 사료곡물수요 7% 늘듯

—수출은 16% 증가—

최근 미농무성이 추계한 사료곡물수급에 의하면 금년의 미국작황 대풍일뿐 아니라 국내의 총수요도 전년보다 7%가 늘어날 것이라 한다. 이는 무려 1,300만톤에 달하는 물량이다.

(단위 : 100만톤)

	사료곡물		옥수수		수수	
	(78/79)	(79/80)	(78/79)	(79/80)	(78/79)	(79/80)
공 급	258.8	266.5	207.8	215.9	23.8	25.4
이 월	41.2	45.3	28.0	31.4	4.8	4.7
생 산	217.3	220.9	179.7	184.5	19.0	20.7
수 입	0.3	0.3	0.03	0.03	—	—
수 요	213.5	227.6	176.4	188.8	19.1	20.4
사 료	132.7	136.5	106.6	110.4	13.8	13.8
수 출	61.1	71.1	55.2	63.5	5.1	6.3
기 타	19.7	20.0	14.6	14.6	0.2	0.2
이 월	45.3	38.9	31.4	27.1	4.7	5.0

# 축산업계 동향

수요증가의 내용을 보면, 국내 사료용으로 3%, 수출용 16%인데, 이중 옥수수과 수수의 수출은 전년보다 각각 15%, 24%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써 금년의 대풍에도 불구하고 내년 이월량은 15% 감소될 전망이다.

사료곡물전체와 옥수수, 수수의 전년대비 79/80 수요추정은 표와 같다.

## 돼지고기수출 어려워

### —양돈업계 일본시장가격 하락으로—

국내 생돈시세하락으로 인한 양돈농가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일본 돼지고기 수출이 일본시장의 가격하락으로 인해 사실상 수출이 중단상태에 있어 새로운 활로 개척이 요청되고 있다.

양돈업계에 의하면 그동안 중단됐오던 대일본 돼지고기 수출을 재개, 1천8백t을 수출목표로 지난 8월 1백14t을 수출했으나 그 이후는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수입국인 일본도 최근 돼지고기생산물량이 급증, 일본정부가 10만마리를 긴급 구매비축하고 있어 돼지고기시세가 급락, 우리나라의 수출가격이 도저히 맞지않아 상담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이같은 돼지고기 생산과잉은 최대생산국인 미국을 비롯한 자유중국동도 같은 실정으로 각국의 양돈업자들은 활로를 찾기에 급급하고 있다.

## 축산기반 조성사업 확충

### —농수산부, 내년 35억 들여

### 초지개발, 한우개량등—

농수산부에 따르면 국민소득향상에 따른 축산물량수요증가에 대처, 축산영농기반조성을 강화하기로하고 내년에는 35억 1천 4 백만원을 들여 초지조성, 가축인공수정, 한우개량및 종축증산, 가축방역사업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농수산부는 금년보다 70%가 늘어난 6억 2 천만원을 들여 2 천ha의 초지조성사업을 벌이고 15억 7 천 7 백만원을 투입, 한우개량및 종축증산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10억 9 천 6 백만원을 투입, 가축인공수정사업을, 1억 5 천 5 백만원을 들여 가축방역사업을 보강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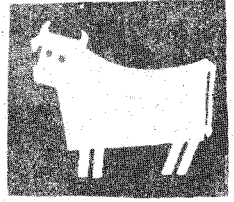
이밖에도 농수산부는 3 천 5 백만원과 2 천 6 백만원을 각각 투입, 독립종축장시설 확장사업과 가축보건소시설개수사업도 벌일계획이다.

농수산부관계관은 축산물의 주종인 쇠고기의 경우 수요는 매년 늘어 91년에는 현재보다 1.7 배가 늘어난 27만 6 천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소의 증식개량사업강화등 축산영농기반강화 대책수립이 긴급하다고 강조했다.

## 농업투자 확대돼야

### —농경연, 2 천년대 식량무기화 대처—

정부가 앞으로 농업부문 투자액을 연평균 경제성장을 수준으로 늘려나갈 경우 2천년대의 우리나라식량자급도는 45%로 크게 떨어질 전망이



어서 식량주기화에 대저한 안보식량확보를 위해 농업투자확대가 강력히 촉구되고 있다

농촌경제 연구원이 장기적인 농업투자 모델을 작성하기 위해, 연구발표한 농지기반조성에 관한 장기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2천년대까지 농업투자를 장기계획상의 연평균 경제성장을 목표인 10.1% 수준으로 매년 늘려간다고해도

식량자급도는 현재의 75%에서 2천1년에는 45%로 30%포인트나 급락할 것이며 2천년대까지 연평균 농업 부문성장목표인 3.5% 수준으로만 농업투자를 증가시켜간다면 2천1년의 식량자급도는 39%나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두개의 투자모델중 10.1% 투자증가모델이 3.5% 투자증가 모델 보다 2천1년까지 곡류수입에 소요되는 25억달러의 외화를 절약할 수 있으며 3.5% 투자증가 모델보다 추가로 소요되는 투자액도 5년뒤인 2천6년까지 회수할 수 있어 장기적인 농업투자 모델로 10.1% 투자증가안이 경제적이라고 분석했다.

## 호주산 폐사육우 보상

—마리당 31만원씩—

경기도는 농협이 작년에 2차로 도입, 농가에 공급한 호주산 육우중 입식후 폐사된 소에 대해 두당 31만원씩 보상키로 했다.

도식산당국은 78년 2차로 도입된 호주산 육우중 농가입식과정에서 폐사축이 특수가축공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따른 농가손실을 막기위해 인수후 40일 이내에 농가의 과실이 아닌 데도 죽은 육우는 정밀조사후 보상키로했다.

## 농협, 내년도 3백50개

### 조합 자립화

—출자금 1 천 2 백억으로—

농협은 내년도에 3백50개 자립조합을 모두 1천개로 확대하고 단협출자금도 1천50억원에서 1천270억원으로 2백20억원을 늘린 계획이다.

농협은 이와함께 내년도에 경영실적이 우수한 단협중 70개 단협에 전무를, 2백개 단협에 상무를 각각 배치하고 단위조합육성을 위해 57억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협은 또 시설자금 1백92억원과 경제사업자금 1백45억원등 총3백37억원을 지원, 7백40동의 공동이용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 '80년도 미국농산물수출액

### 400억불에 달할듯

—옥수수는 80억불에 이를 것—

지난 8월 미농무성이 발표한 향후의 미농산물 수출전망에 의하면 오는 1980년도 미국의 농산물 수출 총액은 금년도 추계인 320억불 보다 10~20% 늘어난 350~400억불 수준이 될것이라 한다.

농산물 수출액의 급격한 증대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품목은 사료곡물과 소맥인 바 내년도의 사료곡물 수출액은 금년도의 67억불보다 35.8%나 증가한 91억불이 될 것이며 수출량은 금년도 6,100만톤보다 16.4% 즉 1,000만톤이 될 것이

# 축산업계 동향

라는 전망이다. 이중 옥수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커서 금년도에도 사료곡물 수출액중 90% 가까운 60억불에 달했으며 내년에는 이보다 33.3%나 증가한 80억불에 이를 것이라 하는 바 이는 내년도 농물수출 예상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금년도 옥수수 수출량은 작년도 생산량의 30% 정도인 5,520만톤으로 추정되나 내년에는 이보다 15% 증가한 6,350만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금년도 옥수수 생산 추정량의 35%에 해당하는 양이라 한다.

이와 같은 농산물 특히 사료곡물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예년보다 5,000만톤 이상의 곡물생산이 감소된 소련의 수입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과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는 수요지역의 축산물 생산이 계속 증가될 것이라는 추측, 미국과 경쟁하는 주요 곡물 수출국들의 내외적인 사정, 그리고 석유가격의 급등에도 굴하지 않는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GNP 증대 등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 대한수의학회 제23차

###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 — 37편의 학술논문 발표도 —

대한수의학회 제23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지난 10월 14일 서울대 수의과 대학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최되었다. 이날 개회식에 이어 수의학에 관한 새로운 연구 논문이 발표, 논의되어 한국 수의학발전을 앞당기고 있는 학술대회가 열려 37편의 연제가 계속 발표되어 이에 관한 질의와 응답이 활발하게 오갔으며 이

어 정기총회가 열려 안전을 토의한뒤 폐회하였다.

한편 대한수의학회는 지난 9월 竹史 李炳都박사의 회갑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지를 발간한 바 있다.

## 농경연, 80년대 기본전략 연구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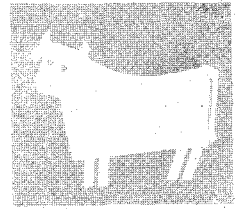
### — 위약농업기구개선에 역점뒤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金甫炫)은 90년대 초반 우리나라 농가호수는 약 1백70만호로 현재의 77%수준, 농가인구는 약 8백30만으로 줄어들어 농가인구의 구성비가 18%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80년대에는 생산성증대를 위한 농업구조개선에 역점을 두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농경연이 발표한 「80년대의 농업발전과 구조개선方案」에서 농업인구의 급격한 감소추세에 대처하여 80년대 농촌개발기본전략은 위약한 농업구조의 개선,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이용을 위한 선택적인 증산, 가격·유통정책의 효율화, 농촌사회및 환경개발에 중점을 두고 경제성장과정에서 타부문에 비하여 낙후되고 농업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공투자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경연은 일본과 대만의 경우 0.5ha미만의 농외소득위주의 겸업농가와 2ha 또는 3ha이상의 전업농가의 비중이 증가해가는 양극화추세가 뚜렷하며 호당 평균규모가 비교적 큰 서독의 경우는 최저효율 규모로 보고있는 20ha이상으로 호당 농경지 대규모화 정책을 진행중에 있다고 지적, 낮은 기계화수준, 농외소득기회의 협소, 농지제도의 경직성등의 이유로 우리나라는 0.5~1.5ha의 중간 계층의 농가비중이 증가해가는 추





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경영규모제증간의 소득격차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각적인 소득증대시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경연은 지금까지의 농가소득성장은 기술발전과 가격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으나 80년대에는 생산성증대와 농외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기간적 전업농가의 육성을 위한 경영규정의 확대와 겸업농가의 협동적 영농을 조장하여 생산성을 높여야하며 농촌경제권을 고려한 중소 규모공업단지조성, 교통, 통신 등 농촌하부구조의 확충, 농촌기술인력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농업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농가는 전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등 그의 여러가지 사회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농협, 각종행사통합

### 새농민대회개최

#### — 10월중 단협별로 13개부문 시상 —

농협중앙회는 승농, 권선, 권학을 겸한 추수 감사행사로 10월 한달동안 단위조합 별로 새농민대회를 일제히 개최한다.

농협에 의하면 새농민대회를 소비절약을 통한 저축생활화와 농촌생활향상을 위한 농민총화를 다짐하는 결의대회로 유도할 방침이다.

새농민대회에서는 단합이 제정한 농협상으로 모범농가상, 장수상, 훌륭한 고부상, 착한어린이상, 저축왕, 출자우수상 등 13개부문의 표창과 단협 공동이용시설의 시공 및 준공식도 아울러 갖게 된다.

농협은 올해부터 저축경진대회, 농산물품평회, 영농기술경기 등 각종행사를 새농민대회로 모두 통합시켜 개최키로 했다.

## 우육제품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심포지움 개최

### — 한국축산학회, 한국유가공협회 공동으로 —

한국축산학회(회장:한인규)와 한국유가공협회(회장:최영규)는 지난 10월19일(금) 오전 9시 부터 유육제품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심포지움을 무역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260여명이 참석 성황리에 개최된 이날 심포지움은 한축회장 한인규박사와 한유협회 최영규회장의 인사에 이어 김현욱 준비위원장의 경과보고를 마친후 국내외 연사 9명 주제발표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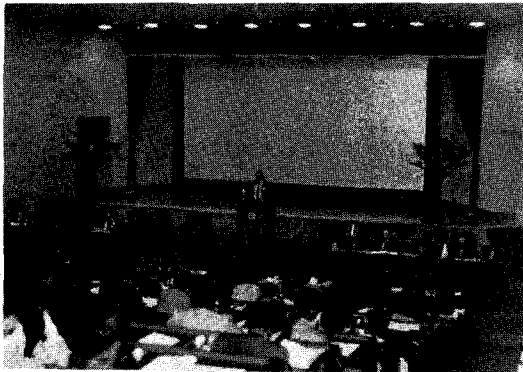
한편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한국야쿠르트(주)와 크라운식품(주)에 대한 감사장수여가 있었다 이날 발표주제와 발표자는 아래와 같다.

- 유육제품의 수급과 유통...김성훈박사(중앙대)
- 육제품의 개발과 이용...이유방박사(KIST)
- 국민식생활개선을 위한 유육제품의 중요성...한인규박사(서울대)
- 유제품의 개발과 이용...김영교박사(고려대)
- 일본유가공산업...Dr. Sukegawa(일본오비히로대)
- 미국의 육가공 산업...Dr. E. H. Briskey(미국오레곤주립대)
- 호주의 유육가공산업...Dr. A. H. Heyman(오스트레일리아)
- 뉴질랜드의 유가공산업...Dr. W. A. Mc Gillivray

# 축산업계 동향

(뉴질랜드)

- 미국의 유가공산업...Dr. G. W. Shelden  
(미 대사관)



## 초지법개정안 의결

### —경제각의, 자금보조용자—

경제장관회의는 초지법개정안을 심의 결의했다.

초지를 확대조정 함으로써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면 개정되는 동법안은 임야 소유주가 초지를 조성하고자 할때 조사결과 적지로 판단되면 산림법·도시계획법 등에 의한 제약을 받지않고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초지조성적지로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초지를 개발하지 않을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리개발 하도록 하여 목축업을 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동법은 또 초지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초지조성시행자에게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낙농경영·사육교육

### —농협, 입식농가·단협직원 대상—

농협중앙회는 새마을소득증대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젖소입식농가대표및 단협의 개발부장이나 영농부장을 대상으로 낙농경영및 사육기술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 안성군 소재 한독목장에서 실시될 이번교육은 1기가 10월31일~11월 3 일까지, 2기가 11월 5일~11월 8일까지로 농가대표 20명과 단협의 관련부장 14명등 42명이 1기에 교육받게돼 2회에 걸쳐 모두 84명이 교육을 받게된다.

3박 4일 예정으로 실시될 이번교육내용은 사양관리, 토지관리, 낙농경영등 이론과 실습이 포함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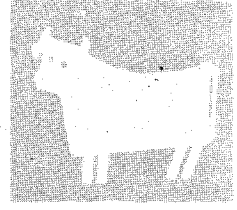
## 미국서 종축28마리 도입

### —축진회, 양축농가에 보급—

축산진흥회는 가축의 자질을 향상시켜 경제성 높은 양축을 도모하기 위한 장기대책의 일환으로 종축(種畜)28마리를 미국에서 도입, 국립종축장을 통해 양축농가에 보급키로 했다.

지난 25일 김포공항을 통해 도착된 종축은 모두 1억 6백만원상당의 젖소(홀스타인)수놈 4마리, 고깃소수놈 4마리(에버딘 앵거스 1, 헤어포드 1, 샤를레 2) 고깃소암놈 20마리(샤를레)로 미국현지에서 우량품종을 도입했다.

그런데 한우와 아를 도입우를 5백일령 체중으로 비교하면 샤를레는 6백22kg 헤어포드는 50백26kg 애버딘앵거스는 4백52kg인데 비해 한



우는 3백kg밖에 안돼 축산물자급을 위해서는 이들 우량품종의 양산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축진은 이번 도입된 종축을 국립종축장에 입식시켜 수놈은 우수정액을 생산, 일반양축농가에 공급하고 암놈은 기본가축을 경신하는데 사용키로 했다.

## 농협, 공판장 4개소 신·증축

###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계획 일환으로 내년 11월 완공—

농협중앙회는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11월 1일 4개공판장의 신설및 증설공사를 착공, 내년 11월 말에 준공할 예정이다.

서독차관 5백만마르크(11억 1천 2백만원)와 내자 25억 9천 4백만원등 총37억 6백만원을 들여 착공될 4개 공판장중 대구 제2분장은 신설하고 영등포·부산서면·부산충무등 3개 공판장은 증·개축하게 된다.

공판장별 시설규모를 보면 신설되는 대구 제2분장은 대지 1천 2백20평에 연건평 1천 4백21평이고 증설및 개축되는 영등포공판장이 대지 1천 3백여평에 연건평 1천 6백47평, 부산충무분장이 대지 1천 1백58평에 연건평 1천 4백평, 부산서면분장이 대지 8백 89평에 연건평 1천 3백60평이다.

## 농사용 전력요금 적용대상 확대

### —농산물저온보관업은 병종으로—

동력자원부는 한전·전기공급요령중 농사용 전

력조항 일부를 개정 10월25일부터 기계입양을 위한 파종 및 육묘, 축산, 농작물의 저온보관등에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서는 가정용 전력요금보다 싼 농사용 전력요금을 적용토록 조치했다.

농수산부의 요청에 따라 농사용 적력사용 범위확대가 이루어짐에 따라 농민들 특히 양축농가 농산물 저장보관업자들이 큰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까지 농사용 전력요금적용에서 제외되었던 기계이양을 위한 파종및 육묘에는 농사용 전력요금「을」종에 적용되며 양계 양돈농가와 목장을 경영하는 농가가 축산을 위해 전력을 사용할 경우, 그리고 농산물 저온보관을 위해 전력을 사용할 경우에는 농사용전력요금「병」종에 해당하는 요금을 물게된다.

농가사용 전력요금규정을 보면「갑」종은 kw/시당 12원53전, 「을」종은 kw/시당 16원 3전「병」종은 kw/시당 18원87전으로 되어있다.

## 사료곡물도입 자유화

### —농수산부, 제도 전반적 개정키로—

농수산부는 축산규모확대로 배합사료량이 급증함에 따라 사료곡물도입을 일반사료업체에 자유화시키는 한편 사료가격을 자유화하고 주문배합사료 생산을 인정하는 등 사료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배합사료 연간 생산량이 4백만t을 넘어섰고 이 추세대로 나가면 3~4년후면 국내 쌀 생산량을 앞지르는 막대한 물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 양축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규제조치가 오히려 축산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사료제도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 축산업계 동향

이에 따라 배합사료가격을 자유화시켜 고효율 사료를 생산토록하고 각 사료업체가 사료공물을 자유수입토록 개방하여 사료업체의 자유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현재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주문생산을 양성화시켜 양축가의 각자양축조건에 맞는 영양성분, 품질을 주문생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수산부는 이같은 사료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원료도입자유화는 내년부터 가격자유화등은 사료공장시설 근대화 계획이 마무리되는 오는 81년도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4·4분기 지원자금

### —46억 3천만원 배정—

축산진흥회는 축산진흥기금중 올 4·4분기 축산지원자금으로 총46억 3천 3백만원을 농협을 통해 배정했다.

이번에 배정된 축산진흥지원자금은 가축증식에 11억 9천만원, 가축개량 5천 4백90만원, 목야조성 11억원, 낙농진흥 9억 5천 3백만원, 사료대책 9억원, 축산물유통개선 4억원, 무균란생산 3천 5백만원등이다.

축진은 축산기반구축을 위해 각종 축산진흥사업에 올해 총 2백97억규모의 대농민용자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9월말까지 2백51억원을 배정방출했다.

한편 축진은 내년에도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기반구축사업을 확대지원하는등 각종 축산사업지원을 올해보다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 산지공판장 50개소 설치

### —농협, 운영자금 1개소 3천만원씩—

농협중앙회는 올해안에 저장창고 및 주차장등 현대식 시설을 갖춘 50평규모의 산지공판장을 주산지 50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다.

농협은 산지공판장 50개소의 설치를 위해 1개소에 3천만원씩 총15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산지공판장의 설치 운영은 농협이 농산물계통 출하방식을 지금까지의 소비자 공판장 중심에서 산지공판장 중심의 공동판매체제로 전환할 방침 아래 농산물판매장을 오는 85년까지 1천 5백80개로 대폭확충 한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농협은 오는 85년까지 주산지 읍면에 상설판매장 5백55개소, 주요읍 소재지에 공판장 75개소, 상설판매장이 없는 읍면에 산지집하장 9백 50개소등 총 1천 5백80개소의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기로 한 바 있다.

앞으로 농산물유통의 중추적역할을 맡게될 이들유통시설등 공판장은 도매기능을 상설판매장은 직판및 중개기능을 산지집하장은 농산물의 공동선별, 포장및 보관기능을 담당케 된다.

한편 올해안에 집중육성할 50개소의 산지공판장 설치지역은 다음과 같다.

- ▲ 경기(7개소) = 인천, 부천, 수원, 안양, 의정부, 동두천, 성남
- ▲ 강원(3개소) = 춘천, 원주, 강릉
- ▲ 충북(4개소) = 제천, 충주, 청주, 영동

# 축산업계 동향

## 「바이오시드」에 관한 세미나 개최

### —일반적인 소독약제에 관한 설명과 축사소독에 대한 필립상영도—

한국화이자(주)(대표:김중배)는 광범위 효과로 살균력이 강해 신속한 소독효과를 갖는 신제품 요드화제제 소독제 '바이오시드'에 관한 세미나를 10월15일 오후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룸에서 개최하였다.

양계, 양돈·낙농가를 위시한 양축가 다수와 관련업계 인사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석탄산제제, 4가암모늄제, 할로겐계통의 소독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요드화제제의 소개가 있었으며 또한 이어서 축사소독에 관한 영화상영이 있었다.

한편 요드화제제인 「바이오시드」는 광범위한 효과로 신속한 치료효과를 거두며, 물에 잘 녹고, 하수처리상의 문제점이 없으며, 경제적인 소독제로 이웃 일본에서는 법적 지정소독제로 널리 알려진 바 있다.



## 한국축산학회 학술발표및 정기총회 개최

### —회장에 이재근박사 취임—

한국축산학회는 제34회 학술발표회 및 제29회 정기총회를 10월20일(토) 서울대 학교 농과대학 시청각교실에서 개최하였다.

학회는 학술발표회, 이사회와 총회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 되었으며 이날 총회에서는 임기만료된 한인규회장(서울농대)후임으로 이재근수석부회장(고대농대)이 선임회장으로 취임하였으며 정관에 따라 이기만부회장(전대축대)이 수석부회장이 되었다.

한편 상무이사에는 박영일(서울농대)교수가 중임되었다.

축산학회는 과거 3년간 374명의 회원이 742명으로 증원되었으며 NRC 사양표준과 사료자원 핸드북 등 간행물 발간사업과 국제활동도 활발하여

- △ Biological Abstract 및 Chemical Abstract와 초록인용 계약(미국)
- △ CAB Abstract와 초록인용 계약(영국)
- △ USDA와 문헌교류(미국)
- △ ISSN Series Number 획득(불란서)
- △ Copyright Clearance Center와 계약(미국)
- △ Ulrich's International Periodicals Directory에 등록(미국)
- △ Pig Research Index에 한국양돈분야 연구 상황 소개 기관으로 선정(영국)
- △ 세계축산학회(WAAP) 가입추진(일본) 등이 되고있으며 연간예산도 1천4백여만원에 이르고 기금적립액만도 2천6백여만원에 달하는 학회로 발전하였다.

# 축산업계 동향

## 한국화이자 제 5 회

### 전국판매점세미나개최

— 10월25일부터 반도유스호스텔에서 —

한국화이자<주>(대표: 김중배)에서는 합리적 기업경영과 판매점 상호 서비스를 위한 제 5 회 전국 판매점 세미나를 10월25일 부터 2일간 서울·영동소재 반도유스호스텔에서 개최하였다.

전국의 가축약품도매상을 상대로 매년 개최되는 본 세미나는 참석자 상호인사에 이어 화이자 중역진 소개와 최근 외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광범위소독제 바오시드를 위시한 신제품 소개와 최근의 경제동향과 우리의 자세(고려대 송기철 박사) 등의 교양강좌와 품질관리, 세무관리등 광범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밤에는 참가자를 위한 여흥도 베풀어졌다.

## 서울사료소식 발간

서울사료<주>(대표: 정대현)는 동사 창립 10 주년을 맞이하여 고객서비스를 위해 서울사료소식을 발간했다.

월 2 회 발행할 예정이며 4 페이지면에 동사소식과 축산물시세, 최신 기술정보, 업계정보등을 수록 지난 10월 15일 창간호를 발행 양축가들과 관련업계에 송부하였다.

## 대규모 육가공장 건설추진

— 농수산부, 비계제거 살고기만 공급 —

농수산부는 파잉생산으로 가격폭락현상을 빚

고 있는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협진·우성등 서울 시내 도축장(도매시장)에 도피기 5 대를 11 월30일까지 설치하도록 지시 12월부터는 돼지비계를 뺀 살고기만을 공급하도록 했다.

농수산부는 비계를 제거함으로써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유도하는 동시에 돼지고기를 원료로한 햄소세지등 가공제품을 고급화하고 대규모육가공장을 설치하도록 민간가공업자를 지원하는등 장기대책을 마련, 이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 축진, 사료검사소 업무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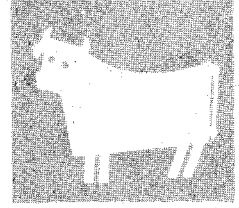
— 특수성분분석기기 설치키로 —

축산진흥회(회장 함만준)는 안양에 사료검사소를 설치 10월2일 상오 현지에서 개관식을 가졌다.

사료 공급물량 증대와 제품의 다양화에 따라 정밀분석검정업무가 요청되고 있어 안양시 안양 6 동 505의8에 설치된 축산진흥회 사료검사소는 현행 성분한도(농수산부고시 제3027호)에 고시된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사료 검사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앞으로 사료검사소는 분석및 검정방법에 대한 기준검사연구업무를 비롯유해물질및 첨가물 분석, 원료의 배합비조성감정, 사고사료에 대한 조사연구(사양시험), 사료의 위생학적 감정, 저질사료의 연구개선, 사료의 가공방법연구개발등 업무를 맡게되는데 축진은 연간 사료분석 전수를 6 천건으로 잡고있다.

축진은 기초적인 분석시설외에 앞으로 특수성분분석및 사료연구를 위한 최신기기를 도입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사료의 품질상향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양고기 수입증대 희망

### — 호주부수상, 이농수산부장관 예방 —

J.D. 안토니 호주 부수상 겸 자원통상성 장관이 지난 10월12일 상오 이회일 농수산부 장관을 예방하고 한·호양국간의 교역증대 문제등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토니 부수상은 생우 및 쇠고기를 적정수준에서 계속 수입해 주기를 요청했으며 우리나라의 양고기 보세가공에 관심을 표명, 육류수급상 가능하다면 양고기도 수입해 줄것을 아울러 희망했다.

## 동물약품관리인 교육 실시

### — 역가보존·안전보관등 다뤄 —

백신등 동물약품의 유통개선과 안전보관을 위한 동물약품관리인 교육이 10월26일(금) 오후에 안양소재 가축 위생연구소에서 회의실 개최되었다.

동물약품협회(회장: 최죽송) 주최로 열린 생물학적제제 취급자·관리인교육에는 전국의 동물약품판매업자 1백여명이 참석 동물약품에 대한 안전보관, 수송, 판매, 취급요령을 비롯 역가보존문제 등을 다루었다.

교육내용 및 강사는 다음과 같다.

현재도상의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  
...이창림(농수산부 가축위생과)

국가검정 동물약품(생물학적제제)  
...김재학(경기도 종축장)

뉴캐슬병의 방역  
...김선중(가축위생연구소)

돼지의 질병과 백신  
...주한수(가축위생연구소)

돈코레라 백신제조공정(슬라이드)

...녹십자수의약품(주)

## 제일제당, 사료판매

### 월간 3만톤 돌파

### — 9월 한달 판매량 3만5백톤 기록 —

제일제당(대표: 경주현)이 배합사료 판매에 있어서 업계 2위로 부상 주목을 끌고있다.

동사는 지난 5월 인천 제2공장내 배합사료 공장을 완공, 출하를 개시한 이래 9월 한달 판매량이 3만톤 선을 돌파하여 3만5백톤(매출액 30억 상당)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동사는 73년 용인양돈장 건설에 따라 이에 공급 할 사료원으로 부산공장에서 일일 생산능력 300톤 규모를 생산해 오다 지난 5월에 인천에 일산 700톤(1일 8시간 가동기준) 규모의 배합사료 공장을 완공, 생산의 전산화를 성공해 안정된 품질의 경제적인 사료를 양산하는 한편 하루 1천톤 이상의 시장을 확보 그 수요에 충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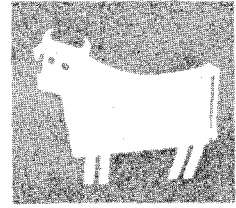
## 축산식품 바자회개최

### — 축산물소비 홍보위해 —

전국대학교 축산대학에서는 최근 심한 불경기도 침체에 빠져있는 축산물 생산업계에 활기를 불어 넣고, 일반 대중에게 영양가가 풍부하고 값이싼 축산식품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지난 10월24일부터 27일까지 축산물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동대학 학생회관 락카룸에서 개최된 이번 바자회는 학생, 교직원은 물론 일반대중들의 호응

# 축산업계 동향



을 입어 계란과 햄, 베이컨, 소시지, Smoke 통닭, 우유등 많은 축산물제품이 판매되었으며 특히 계란은 2만여개가 팔려 가장 값이 싼 단백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재인식 시켰다.

## 업계 단신

○한국낙농학회(회장:육종웅): 10월13일 수원소재 서울대 농대에서 학술발표회 및 총회를 개최



(육종웅)

○박영인(미사료 곡물협회 한국지부장): 미국 옥수수 가공업계 시찰단일행으로 10월20일 미국으로 출국

○유산실업<주>(대표:전영창): 9월19일부로 동물약품등 수출입 신규허가 획득  
주소: 서울 중구 명동 5-1  
☎ (778)8767~70

○강승조(이글케미칼 공업사 대표): 9월20일부터 호주 및 뉴질랜드 축산현황을 전학하고 10월2일 귀국.

○동성산업사:(대표:배성규):산란계의 산란율 향상, 사료부패방지등 사료의 경제성 향상을 위해 신제품 사료고르는 기계를 개발 시판 중.  
주소:경북 대구시 서구 평리4동 1217-20

○신흥부화장(대표:김영환):산란계 하이섹스 백색과 육용계 하이브로를 분양중인 동부화장은 80년 1월부터 영국에서 직수입한 육용종 마살 C.C.가 분양됨에 따라 영업업무를 강화하고 지난10월중 일본 이시이회사제품인 peal 최신형 완전자동 대형부화기 1대를 더 구입하여 시험가동에 성공함으로써 대형부화장 대열에 시계 되었다

○미국 동남부가금협회: 미국조지아주 아틀란타시에서 내년 1월24일부터26일까지 가금관계장비, 기구, 약품, 등 일체를 전시할inter-national poultry trade show 개최 예정

## 이전

◇부천지구축산협동조합(조합장:황준호): 200톤규모의 최신배합사료공장 가동에 따라 부천시 소사동 30-1로 사무실 이전

☎ (인천) 6-2281~5

◇수원계우회(회장:이재원): 경기도수원시 영동 27-4로 이전 ☎ (수원) 5-6336

## 업계 인사

◎신촌사료<주>(대표:강신국): 업무부차장 이찬수씨를 부장으로 승진발령

◎농수산부: 국립농업자재검사소 생물검사과장 김순표씨를 의원면직하고 후임에 김한수씨를 전보, 국립종자공급소 합평지소장에 한상문씨를 임명.

◎신흥부화장(대표:김영환): 배관식씨(전 한일농원)를 영업담당 상무로 특채

◎서울사료<주>: 대표이사에 鄭大憲씨 취임



# 이달의 광고 目次

## 부 화 장

고창양계 센터.....	124
광일부화장.....	표 2
금성부화장.....	136
동신부화장.....	78
동양부화장.....	175
류림농장.....	134
마산형제부화장.....	216
마브록협력회.....	16
봉명부화장.....	80
삼일농장.....	15
서림부화장.....	8
성원부화장.....	24
신신농장.....	215
아바에이카원중농원.....	표 3
유리브리드협의회.....	목차
유성형제부화장.....	176
중원농장.....	133
지산부화장.....	128
천호부화장.....	11
하바드원중농장.....	173
한국원중농원.....	127
한협가금육중농장.....	표 4

## 사 료 회 사

고려산업.....	17
-----------	----

대홍사료.....	81
대한사료.....	88, 89
대한제당.....	76, 77
동서농산.....	126
미원사료.....	14
부국사료.....	79
삼양사.....	18
서해농산.....	214
신촌사료.....	85
영남제분.....	132
영육농산.....	174
우성사료.....	82, 83
은성산업.....	135
제일사료.....	3
제일제당사료.....	130
진흥사료.....	177
한성사료.....	129
한일사료.....	7
흥성사료.....	75

## 제 약 · 약 품 · 사 료 도 매

과학사료.....	12, 13
과학축산.....	10
고-킹.....	5
녹십자수의약품.....	123
대성미생물.....	171

동방화학.....	9
동호가축약품.....	본문
삼성신약.....	172
삼승리가축약품.....	본문
삼우화학.....	86
유한양행.....	87
중앙약품.....	84
한국바이엘.....	178
한국화이자.....	6
한두교역.....	138
한풍산업.....	131
현대약품.....	125
협신가축약품.....	본문

## 기 타

경도탈모기.....	211
대일수지.....	212
동남축산.....	22
동성산업사.....	26
동일프라스티공업사.....	137
부국사료상회.....	본문
신양상사.....	217
연일화섬.....	218
제일양계기구.....	23
축산기구사.....	213
태양미싱.....	20
한국성형제지.....	4

\* 광고마감일 : 매월 15일